눈 눈 눈…폭설이 바꾼 생활

최근 광주·전남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5~10도를 오르내리고, 수일 간격으로 10~20㎝의 폭설이 내리면서 온 지역이 꽁꽁 얼어붙었다.

출퇴근 시간이면 어김없이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회사원과 학생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각 지자체는 새벽부터 눈 치우기에 여념이 없고, 병원에는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환자들로 넘쳐 난다.

눈이 쌓이면서 아파트와 도로 등 대부분의 건설공사가 중단돼 인력시장에는 공치는 날이 늘고 있다. 폭설과 한파 때문에 모든 것이 막혀 불편하고 힘든 겨울이 이어지고 있다.

①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버스·지하철 승객 급증

시내버스와 지하철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다. 평소보다 시내버스는 10% 이상, 지하철은 25% 이상 승객이 늘었다.

13일 광주시가 시내버스 승객수를 분석한 결과 눈이 내린 날에는 승객 수가 평균 50만명을 넘어서, 평소의 44만명에 비해 13.6%(6만명) 증가했다. 승객 수가 늘어난 만큼 수익도 하루 3천만원 이상 증가했다. 지하철의 경우 폭설이 내린 지난 해 12월18일 6만4천여명의 시민이 이용해 평소 4만8천여 명에 비해 33%(1만6천명) 폭증했으며, 이후 눈이 내린 날이면 6만여명의 시민들이 지하철을 타고 있다.

도시철도공사 측은 눈이 출·퇴근 시간대에 내릴 경우 지금까지 최대 승객 기록인 6만 8천명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② "주민 불편 줄여라"…광주동구청 골목길도 제설

광주시청과 각 구청 공무원들은 퇴근 시간도 없어졌다. 동구청 직원 600여명은 대설 특보가 내려지거나 도로에 눈이 쌓이면 예외없이 삽과 염화칼슘을 챙겨 자신의 담당구역으로 달린다.

동구는 지난 12일 밤 눈이 쏟아지자 제설대책반을 가동해 너릿재와 무등산 전망대, 남광주고가 등 12개 주요 노선에 염화칼슘과 모래를 살포하고 제설차를 이용해 쌓인 눈을 치웠다.

또 이른 새벽부터 전 직원이 동명동 동명아파트를 비롯한 지역내 65개 공동주택 단지로 나가, 골목길에 쌓인 눈을 쓸거나 염화칼슘을 뿌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동구는 또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될 경우 제설 초기대응반 2개조가 지역내 결빙 구간인 남광주고가 등을 수시로 순찰, 초기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③ 인력시장도 '꽁꽁'…공치는 날 많아 생계 어려움

지역 인력시장의 일감도 꽁꽁 얼어붙었다. 아파트는 물론 대부분의 공사 현장이 작업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전문건설인력이 아닌 이른바 '잡부'(건축 자재 나르기·청소 인력 등)를 현장과 연결해주는 광주시 북구 신안공 K인력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말부터 일감이 없다 보니 사무실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북구 신안동에서 건설 일용직 노동인력을 공급하는 S인력사무소도 사정은 마찬가지. 건설경기 비수기인 겨울인데다, 폭설까지 내리면서 일감이 아예 끊겼다는 게 이곳 소장의 설명이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하루 평균 15명 정도는 일감을 찾아 현장에 나갔는데, 지금은 그나마 유지되던 인력 수요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④ 교통·낙상사고에 병원 혼잡…동파사고도 잇따라

눈이 녹기도 전에 도로가 결빙되면서 교통사고와 낙상 환자가 늘고 있다.

13일 오후 1시30분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4거리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택시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날 하루에만 광주서부경찰에 접수된 사건이 6건, 가벼운 접촉사고는 수십건이 넘었다.

낙상환자와 강추위에 따른 뇌졸중이나 뇌경색 환자들도 병원에 줄을 잇고 있다. 조선대병원 정형외과는 평소에 비해 30% 가량 증가한 낙상 환자로 하루 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동파사고도 이어졌다. 이날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김모씨의 집 수도관이 파열하는 등 광주에서만 총 7건의 동파사고가 접수됐으며, 지난달 16일부터 이날까지 모두 71건의 동파사고가 접수됐다.

이와 함께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이날 오전 7시50분께 목포에서 홍도로 출발하려던 여객선이 결항하는 등 목포와 여수, 완도 등에서 도서지방을 오가는 29개 항로 45척의 여객선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북구청 제설 차량이 13일 용봉동 전남대 정문 앞 도로에서 광주·전남에서 처음 도입한 친환경 '액상 제설제'를 이용, 제설작업을 벌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오전까지 최고 7cm 눈

광주·전남 영하 10도 강추위

14일 오전까지 광주·전남에 최고 7㎝의 눈이 더 내리겠으며, 추위는 15일부터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4일 광주·전남은 오전까지 다소 많은 양의 눈이 내리다가 낮부터 갤 것"이라고 13일 예보했다.

예상 적설량은 함평, 영광 등 서해안 지방은 3~7㎝, 그 밖의 지방은 1~3㎝.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0도~3도.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15일 낮부터 점차 풀려 16일부터는 평년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돈선거' 조합장 전원 당선무효형

광주지법 한달새 4명

법원이 최근 한 달새 '뒷돈 선거'로 기소된 농·수·축협 조합장 4명에 대해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승휘 판사는 13일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광주 S농협 조합장 박모(55)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농협법에 따라 조합장 자격을 잃게 된다.

박씨는 지난 2008년 11월 25일께 광주 모 병원에서 조합원에게 20만원을 주는 등 8명에게 8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 농협은 조합장들의 부정선거로 인해 최근 4년간 3번씩이나 재선거를 치렀음에도 또다시 신임 조합장이 '중도 하차'의 위기에 놓였다.

앞서 법원은 영광군 G농협 조합장 김모(56)씨에 대해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선거 3개월 전인 지난해 1월 영광군 한 조합원의 집에서 5만원짜리 굴비세트를 주는 등 조합원 9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또 최근 영광군수협 조합장 김모(49)씨에 대해 조합원 2명에게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화순 모 농협 조합장 서모(61)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는 등 잇따라 당선무효형의 '철퇴'를 가하고 있다.

광주지법 김종복 공보판사는 "최근 조합장에 대해 중형이 선고된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급적 직위상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공정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부정한 공직자가 공직에 머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법원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액상 제설제 첫 도입

염화칼슘의 2배 효과

광주시 북구는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염화칼슘' 대신 친환경 제설제인 '액상 제설제'를 사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액상 제설제'는 염화칼슘보다 가격이 1.5~2배 비싸지만 친환경 성분으로 제작된 제품이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12일 예산 1천여만 원을 들여 제조업체로부터 '액상 제설제' 18t을 구입한 뒤 이날 살포했다.

구 관계자는 "결빙 구간에 뿌려봤는데, 눈과 얼음 녹는 속도가 염화칼슘보다 두 배 이상 빨랐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쉿! 반달곰 겨울잠

지리산서 "야~호" 마세요

지리산에 방사돼 야생 적응 중인 반달가슴곰 17마리 중 15마리가 최근 동면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반달곰 1마리가 지난달 11일 처음 겨울잠에 빠진 것을 시작으로 나머지 반달곰들도 동면에 들어가 15마리가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지난해 지리산에서 태어난 새끼 반달곰도 어미 곰과 함께 겨울잠에 빠져든 것으로 추정됐다. 공단 관계자는 "등산객들은 지정된 탐방로만을 이용하고 특히 '야호' 등 큰 소리를 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나원참 〈8004〉 김종두

20대 원룸女 살해범 검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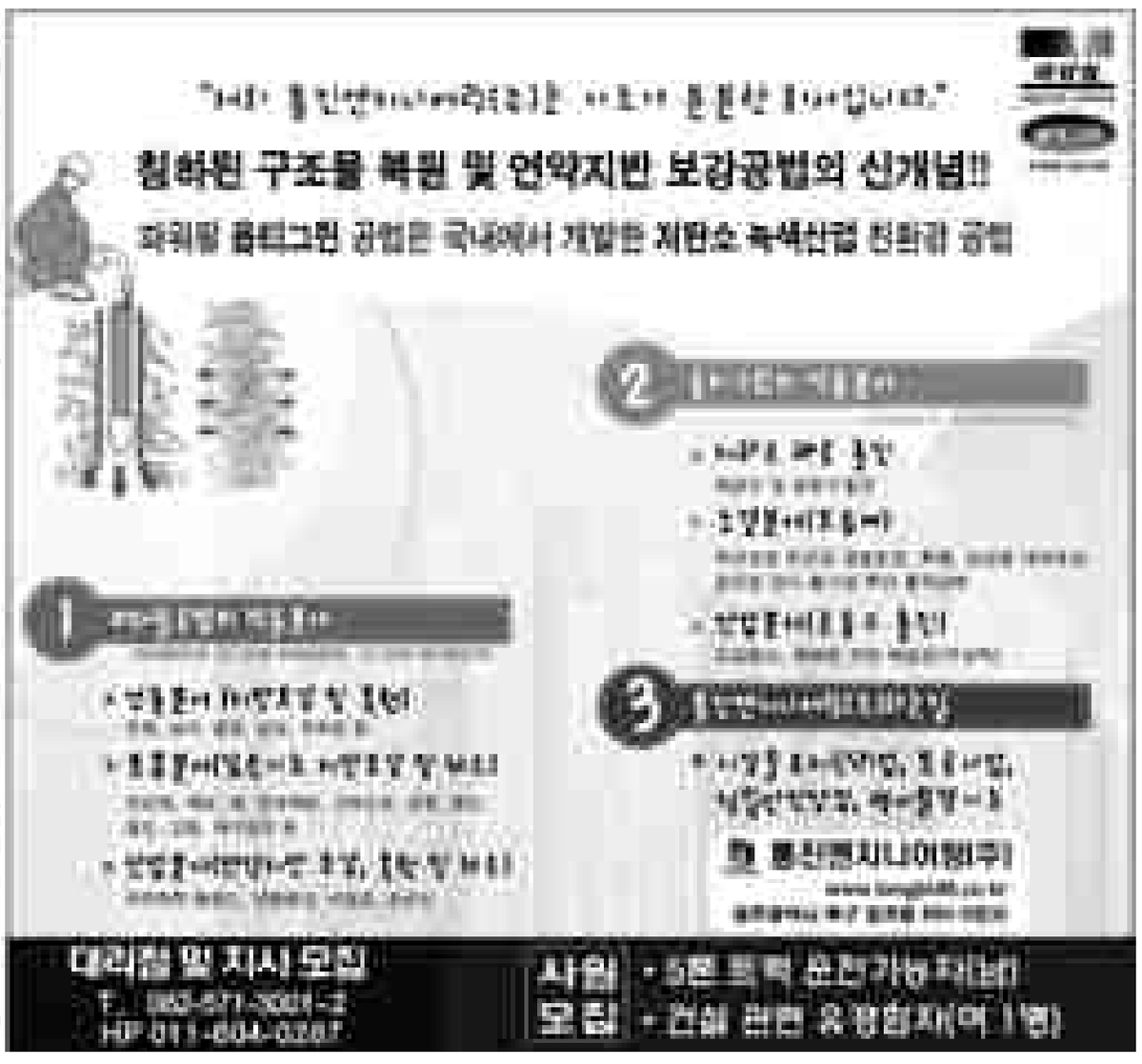
목포경찰은 13일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여성을 살해한 황모(32)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황씨는 지난달 14일 밤 9시께 목포시 D오피스텔에 사는 K(여·26)씨를 자신의 오피스텔 방으로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5년 전 조선소 방화 CCTV가 잡았다

쌍나팔

○…5년 전 조선소 화재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던 40대 업체 대표가 CC-TV에 찍힌 자신의 방화 흔적 때문에 결국 '쇠고랑'.

○…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홍준호)는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조선소에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한모(46)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한씨는 지난 2005년 8월 10일 고흥군 도양읍 K조선소에 들어가 수지 등에 불을 붙여 공장 내부(1천346㎡)를 전소시키고 L보험사로부터 5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

○…한씨는 경찰의 수사 종결로 '완전 범죄'를 이루는 듯 했으나 최근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화재 5분 전 조선소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차량이 찍힌 CC-TV를 확보함에 따라 범행이 들통. /최경호기자 choice@